

목포·진도 해상케이블카 속도 붙었다

총무공 일 깃든 유달산~고하도...노적봉도 조망 명량대첩 전승지 울돌목 우수영~진도타워 연결 대통령 공약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중심지 기대

총무공 이순신의 '불멸의 호국정신'을 해상 케이블카에서 되새기며 호연지기를 기르게 된다.

명량대첩의 현장인 울돌목과 총무공의 얼이 살아숨쉬는 목포 유달산에 해상케이블카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이 곳은 대통령 공약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진도군과 해남군, 목포시에 따르면 해남우수영~진도타워를 연결하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와 목포 고하도~유달산을 잇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불멸의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에 건설된다. 해남우수영~진도타워를 잇는 950m 길이의 케이블에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설치된다. 또 진도타워에서 승전무대까지 200m 구간에는 4인승 체어리프트 20대가 가설된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을 맡은 ㈜울돌목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착공, 내년 말 개장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초 열리는 '명량대첩축제'를 이 곳에서 한 눈에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량대첩은 조선수군 13척이 울돌목에서 일본수군 133척에 맞서 승리한 불멸의 해전이다. 명량대첩축제의 백미는 이 전투를 재현하는 장면이다.

울돌목을 경계로 해남 쪽에는 명량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지휘 병영인 전라 우수영의 유적지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우수영 터가 있는 주변 10개 마을이 최근 이색 미술관으로 변모해 해상케이블카 관광시 필수 코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마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의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해 벽화, 조각, 설치미술, 갤러리 등 총 67점의 작품들이 있다.

우수영 건너편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군영이 있던 진도로 이순신 장군 전첩비(戰捷碑)가 있는 벽파진이 있다. 진도에는 고려말 삼별초가 대몽항쟁을 벌이면서 축성한 왕궁인 용장산성과 남도석성, 운림산방 등 유서 깊은 유적과 문화유산도 가득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울돌목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해남~진도 간 패키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이라며 "특히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을 공중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마지막 행정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목포시는 다음 달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달산 자락에서 시작해 이등바위-소요정-일등바위-마당바위-유달산을 거쳐 고하도에 이르는 총연장 3.23km로 국내에서 가장 길다. 총 사업비 510억원이 투입되며, 2018년 완공 예정이다.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되면 유달산과 고하도를 중심으로 총무공의 호국열이 살아 숨쉬는 역사 현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총무공의 호국정신과 호연지기를 가슴에 새기며 기를 수 있도록 총무공이 활동한 역사 현장에 해상케이블카가 건설된다. 총무공의 얼이 숨쉬는 목포 유달산~고하도를 잇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조감도(위)와 해남우수영~진도타워를 연결하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서는 울돌목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임진왜란 당시 바위에 이영을 덮어 군량미처럼 보이게 해 왜군이 자진 철수하게 했다고 전해지는 유달산 노적봉. 노적봉 맞은편에는 일본 수군에 맞서 성을 쌓고 108일 동안 주둔하면서 전력을 정비했던 고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당시 성터

는 물론 총무공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건립한 기념비, 사당인 모충각 등도 볼 수 있다.

영암과 해남, 멀리 신안까지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이 눈 앞에 펼쳐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 정부 초대 중소기업부장관은 누구?

의원·교수 등 하마평...업계 "강력한 리더십 필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기업부장관이 주목된다.

경제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는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된 중소기업부의 장관 인선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신설 중소기업부 초대 장관 자리를 놓고 정치인과 학자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떠오른 만큼 장관 후보로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힘을 가진 여당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윤호중 의원과 박영선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윤 의원과 홍 전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동정책본부장과 부분부장을 각각 지낸 민주당의 정책 브레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4선

의 중랑급 정치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강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각료 비율을 30%로 맞추겠다고 했지만 아직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벤처 IT 기업이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와 전 정부에서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제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정치인 장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초대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는 다른 부처 장관보다 리더십이 강력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 절반 이상 "여름 휴가 간다"

작년보다 4.9% 늘어... 7월말~8월초

올해 여름 휴가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작년보다 늘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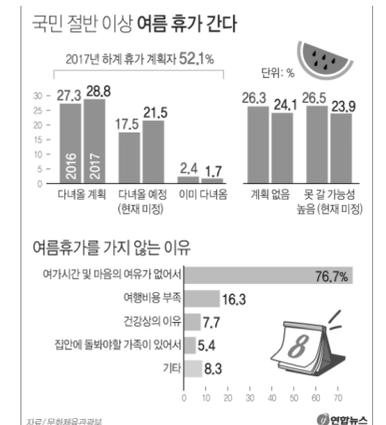
아울러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 중 80% 이상이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이 7월말~8월 초에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41명을 대상으로 '2017 여름 휴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작년보다 4.9%포인트 늘어난 52.1%가 여름 휴가 계획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 52.1%는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28.8%), '휴가 여행을 다녀올 가능성이 큰 사람'(21.5%), 이미 휴가를 다녀온 사람(1.7%)의 합이다.

여름 휴가 계획이 없는 나머지 48%의 경우, 그 이유로 '여가·마음의 여유가 없어서'(7.7%)라고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여가·여유가 없어서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사람은 작년(66.4%)보다 10.3%포인트 증가했다.

문체부는 업무, 학업, 가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죽음의 백조' 美 B-1B 한반도 훈련 강행

북 도발에 강력한 경고

지난 8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체를 만난 지난 6일 B-1B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며칠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한반도 상공에 짙은 구름이 끼는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B-1B편대는 공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

공군은 B-1B 편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하고 우리 영공을 빠져나간 직후 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B-1B 편대와 함께 비행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찍은 이들 사진과 영상에는 B-1B 2대가 각각 2천파운드(약 900kg)급 LJDAM(레이저통합직격탄) 'GBU-56' 1발을 투하하는 장면이 담겼다.

B-1B 편대가 투하한 LJDAM은 강원도 평강시격장에 설치된 가상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대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가 우리 상공에서 공개적으로 실사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B-1B 편대의 전개는 북한에 대한 경고에 무게가 실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가맹점 갑질, 전년비 52% 쯤충

상반기 분쟁조정 1242건...가맹사업거래 356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1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총 4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971건)보다 28건 증가했다.

처리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년 전(183건)보다 9% 증가한 358건이다.

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늘어난 관련 분쟁 중 일부 사건이 일반 불공정

거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통계상 사건 처리가 증가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가맹사업거래도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영세 가맹본부 가 늘어난 데다 가맹점주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조정원은 전했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분쟁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상반기에 처리됐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주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웅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토지/기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